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1호선 대방역 하차 3번출구 좌측 골목 50m 위치

Y 순환버스 61, 62

G 지선버스 5531, 5612, 5614, 6211, 6411, 6513, 6514

B 간선버스 150, 360, 361, 362, 363, 605, 640, 641, 642, 650

R 광역버스 9408

우편번호 156-80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4-14번지 3층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맞은편 위치/ 영광힛집 건물 3층)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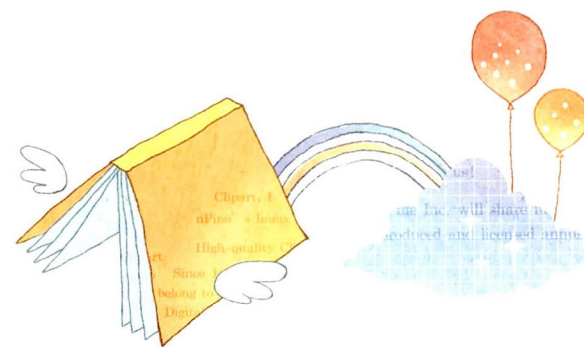
TEL. 02-822-1369 / FAX. 02-822-1353

홈페이지 <http://www.withworldwomen.org>

카페 <http://cafe.naver.com/with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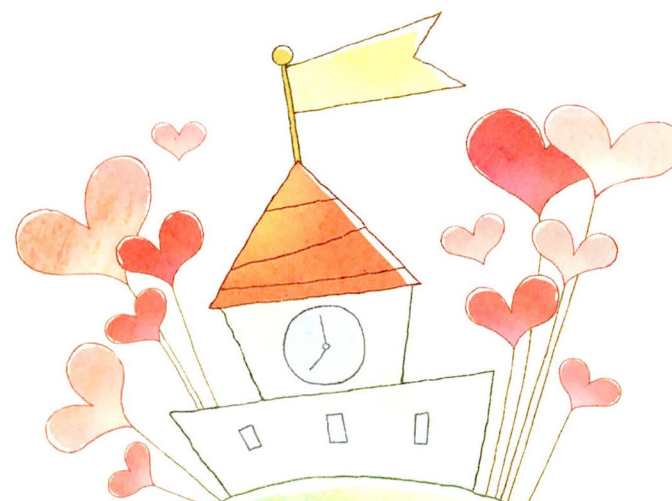
페이스북 <http://facebook.com/withwomen>

트위터 @twitwithwomen



다문화가정부모를 위한 지침

이중언어교육 이렇게 해주세요!



인간존중, 큰사랑, 행복나눔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Tel. 02-822-1369
www.withworldwomen.org

2) 언어 혼란기!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언어 교육을 결심하기 전 흔히 생기는 걱정이 바로 아이가 여러 언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다 보면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언어 혼란기를 겪어 우리말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 물론 아이들도 언어 교육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것이지요. 딱딱한 문법 위주나 주입식 교육은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어 외국어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엄마는 일찍 시작하는 만큼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이것은 a야, 이것은 b야”라는 딱딱한 암기식 교육을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조금씩 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이의 머리에는 다른 언어의 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아이에게 모국어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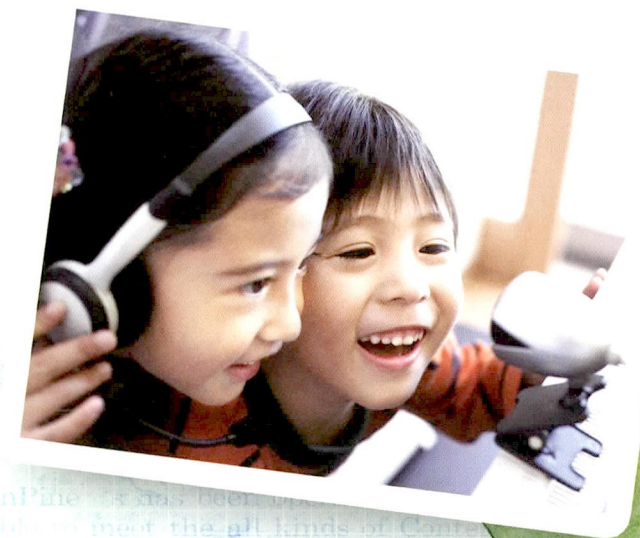
이중언어 교육은 이렇게!

첫번째. 장기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 이중언어를 능숙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모국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이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서 표현력과 어휘력 등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천천히 조금씩 아이를 믿고 실천해보세요!

두번째. 문자가 아닌 소리를 들려줍니다.

- 언어는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 시작은 ‘소리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모국어를 들려주고 그 속에서 엄마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중요한 점은 쓰기와 읽기를 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순간 외국어는 ‘학습’이 되어 부담을 갖게 되니, 놀면서 익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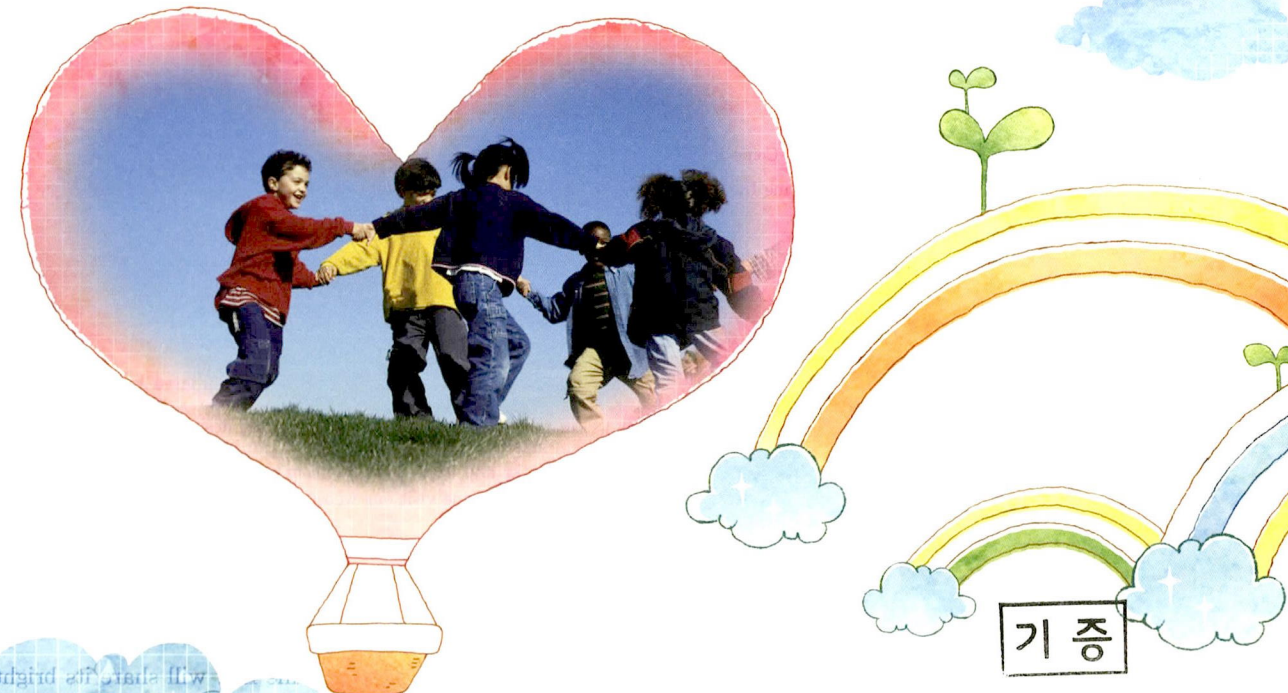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역량강화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폭넓은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모든 여성을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조기언어교육에 대한 제안

1) 어릴수록 아이의 언어 흡수 능력은 뛰어납니다.

- 아이들은 어떤 언어의 말을 익히든 간에 대략 생후 18개월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만 4세 정도가 되기 전에 문장의 구조를 익혀 “엄마, 물 주세요”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하려면 18개월 이전 아이가 웅얼이를 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젖을 먹일 때도 잠을 재울 때도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들려 줍니다. 그러다 12개월이 지나 말을 비교적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모국과 관련된 그림책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모국어를 시작해 봅니다. 18개월 이전의 아이에게는 외국어나 모국어의 개념이 없으므로 그냥 듣는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내면서 언어를 익히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추어 한국어, 모국어를 교육하게 되면 아이의 머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말 습득 장치와 더불어 모국어 습득 장치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번째. 아이의 어머니의 언어능력을 사람들 앞에 시키지 않습니다.

-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성인들이 모두 공통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공연하듯이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기 어려워지니 주의하세요.

네번째.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오늘 엄마랑 OO어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내일 소풍가는데 OO는 데려가지 않을꺼야"란 식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로 사용하는 것은 아이의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다섯번째. 아이의 실수에 웃지 않습니다.

- 아이가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실수에 웃으면 절대 안됩니다. 아이는 자신에 실수에 웃는 것을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상처를 입고 다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아이의 실수를 대놓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모르게 대화 속에서 천천히 고쳐주어야 합니다.

여섯번째. 반드시 엄마와 함께합니다.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엄마와 함께 하는 교육은 아이의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기분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와 문장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아이수준에 맞는 모국어 그림책이나, 대중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 듣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외국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외국어를 신나는 놀잇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